



고통받는 이들의 쉼터 “베다니의 집”

매 고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그는 어느 걸인을 만났다. 그리고 1년 가까이를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의 먹거리를 그 걸인과 나누었다.

그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해두신 내일을 향한 출발이었는지도 모른다.

시흥에서 인천으로 가는 제 2 경인고속도로 옆쪽에 자리잡은 '베다니의 집'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대표인 김호성 목사를, 사람들은 '거리의 목사', '거지 목사' 라고들 한다. 매일 오토바이를 끌고 근처 삼미시장을 다니며 베다니의 집 식구들과 거리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먹거리들을 얻는 그를 보고 붙인 별명이다.

『초등학교 때 그 걸인을 만난 후, 제 눈에는 노인·동냥하는 사람·아프고 버려지고 배고픈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목사가 되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제 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2년 이곳에 베다니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이랴 외양간을 고친 가건물이고 황량한 땅을 일구어야 했지만...』

이렇게 집을 마련한 김목사는, 장애인·행려병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식구를 불러나갔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여기저기 구걸을 하러 다녔다. 그러는 동안 김목사네는 인신매매꾼으로 몰리기도 했고, 누구의 발에서 죽은 닭을 주워 요리다 도둑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적지 않은 수의 노인·장애인·중병인·고아 등이 살고 있다.

베다니의 집에서는 몇 가지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거리 공동체. 한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결식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해, 동인천(인천백화점 앞)과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에서 일요일만 빼고 매일 무료 배식을 하고 있다. 거리 공동체에서 먹여

살리는 사람만도 3백명이 넘는다.

두 번째는 내실공동체다.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베다니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극빈자 공동체. 소년소녀가장, 밥을 굶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리고 식구들이 고질적인 무기력증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크게 아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업장에서 전선줄 감기나 나사 조이기 등 단순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은 작으나마 작업에 참여했던 식구들 개개인의 재산으로 돌아간다.

베다니의 집의 운영은, 모두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없이 기독교인이나 개인이 보내는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인심은 생각보다 박한 모양이다. 단돈 1천원의 후원금을 이곳으로 보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 한다.

결국 김목사는 식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 매일 주변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든 얻어와서는 식구들의 먹거리를 만든다.

어쩌다 삼미시장 상인들이 생선이나 어묵 한 상자, 돼지고기 몇 근이라도 그의 낡은 오토바이에 올려주는 날이면, 그의 얼굴은 식구들이 모처럼 영양보충을 하겠다는 생각에 흥분과 기쁨에 가득 찬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과 희생의 정신과 마음으로 함께 하지만 이렇게 베다니의 집을 꾸려가는 데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역시 부인 박순덕씨.

『신학교 시절에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저만큼이나 거리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여주지 못했는데도 모든 고통을 함께 하면서 베다니의 집 안 실랑이를 맡아왔지요. 지금도 식구들 밥하는 일과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말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 4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강선희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농구스타 강동희 선수의 누나이기도 한 그녀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우연히 이곳을 방문했다가 김 목사의, '여기서 나는 모든 냄새가 향기로 느껴질 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이에 매일 출근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중병인을 돌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수선한 환경과 냄새가 싫었지만 이제는 목사님 말씀대로 향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간다고 할까요. 우리 식구들은 배가 고프는 사람

들이니까 먹을 것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 베다니에집 대표 김호성 목사

그래서 그녀는 식구들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다고 한다. 그러다 그들의 이름에 그만 눈물을 쏟고야 만다는 그녀를 식구들은 '눈물로 말하는 여자'로 부른다.

겨울이 오면 연료 걱정, 여름이면 비 섀 걱정, 입성이 부족해 걱정, 식구가 아파서 걱정 등등 철마다, 날마다 걱정거리가 없는 적은 없지만, 요즘 베다니의 집에는 정말 큰 걱정이 있다. 다른 시설들은 아쉬운 대로 식구들이 먹고 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보완되었지만,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

하루 세 차례씩 있는 예배를 보는 예배당마저도 식구들의 숙소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들의 거처를 마땅히 옮길 곳이 없다고 한다. 제대로 지어서 쓰려면 1억 5천 만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 모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그래서, 단돈 천 원이라도 꾸준히 보내줄 수 있는 후원자가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하루 20kg 짜리 쌀 5포대, 한 끼 라면 5박스, 70여명의 식구와 300여 명의 거리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규모가 큰 만큼, 파 한뿌리, 비누 한 장이 아쉬운 실정이라는 김목사는, 무엇이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후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인과 재벌들은 커다란 교회를 짓거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수많은 버려지고 배고픈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김호성 목사의 사랑이 가득한 베다니의 집은, 오늘도 세상살이가 힘겨운 모든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 [7]

배고프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후원을 보내주시십시오.

- '단돈 1천 원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70여 명의 베다니의 집 식구들의 생활과 거리 공동체 무료 배식에 쓰여드립니다.

- 쌀·라면·비누·현 옷·우유·과자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내주시지요.

- 베다니의 집은 소외된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 연락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586-41 (전화:032-694-6982)